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글로벌 해양강국!
	배포 일시	2020. 2. 27.(목) 총 9매(본문 7, 참고 2)	
담당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 과장 정도현, 서기관 주상호, 서기관 신동호 - ☎ (044) 200-5120, 5121, 5128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바다에서 시작하는 혁신성장, 활력 넘치는 연안 · 어촌

- 해양수산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27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해양수산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해양수산부는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 ▲**연안·어촌의 경제 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3가지 주제로 올해 주요 과제를 보고하였다.

○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의 확실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운·수산 등 **주력 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신산업 육성·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삶의 질 개선**과 안전 체감 등에 주안점을 둔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5대 중점과제>

1 주력 해양수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2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3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4 해양수산 현장 全분야에 안전 제일주의를 뿌리내리겠습니다.
5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로 해양영토를 넓히겠습니다.

혁신성장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든다

1 주력 해양수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한진해운 사태 이후 위축된 우리 해운 물류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국적 원양해운선사 영업이익 흑자 실현과 해운 매출액 40조원 달성** 등 한진해운 사태 이전의 우리나라 해운업의 글로벌 위상 확보

○ 국적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2월)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운영자금 등까지 보증범위 확대, 투자방식 다양화(중고선, 선/후순위) 등

○ 이와 더불어, **해운물류업계**의 **자율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세안 국가**의 **항만개발·운영 시장 진출**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또한, 선박 대형화와 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부산·광양·인천 등 거점 **항만**을 차질 없이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에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 임대료 면제(지침 개정, '20.上), 입주규제 완화(항만법 시행령 개정, '20.下) 등

□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를 기반으로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수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하여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로 전환하고, 1천 5백 톤급 대형 수산자원조사선 취항(6월), 자원평가 대상 어종 확대(45→60종) 등을 통해 **자원조사**도 강화한다.

* ('19) 333억원 375척(연안 363, 근해 12) → ('20) 1,002억원 126척(연안 51, 근해 75)

○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8월)하고,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 연구로 양식산업의 미래

혁신성장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든다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수산식품수출클러스터(전남 목포) 설계, 수산식품육성계획 수립(12월) 등을 통해 **수산업**의 **식품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연어·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 허용

** 외해 플랜트형 양식 타당성조사 연구('19.8~'20.3) → 외해양식 모델 검토·개발('20~)

2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해양수산 분야의 5대 전략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계(서천, '20.下)를 시작으로 해양바이오 뱅크의 분석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개발된 수중로봇의 실제 항만 공사 투입 등을 통해 실해역 운용을 지원하고, 불법어업 단속과 적조 모니터링 등에 시범적으로 드론 도입을 추진한다.

- 또한, 갯벌, 소금 등 우수한 치유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해양치유 지구*를 조성하는 한편, LNG·수소·전기선박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실해역 시험장을 조성하여 기술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 완도('19, 착수), 태안·울진·경남고성('20~, 설계·착수)

□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4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Navigation), **▲자동화·스마트항만**, **▲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4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든다

- 이를 위해, 자율운항 항해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e-Navigation의 서비스 개시('21)를 위한 실해역 검증, 컨테이너 자동 하역시스템 도입(광양), 아쿠아팜 4.0 R&D 추진 등을 통해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다.

3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어업인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소득·복지 여건을 개선한다.

◈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

○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을 고성 등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도 확대('19년: 3.26 → '20년: 3.48조원)한다.

○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외국인 선원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원의 인권·복지** 수준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 어촌·어항·연안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 **어촌뉴딜 300사업***을 중심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간 소외되었던 내륙어촌의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 개소 : '19, 70 → '20, 120개소 / 예산 : 총 4,344억원

○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를 '22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항만재개발**을 추진한다.

○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거리·생활구간 여객 운임과 화물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대도 추진한다.

혁신성장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든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

○ 폐어구 집하장 확대('20년 40개소)와 바다환경 지킴이(1,000명) 확대 등을 통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배출규제해역 지정(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과 함께 강도 높은 선박연료유 규제**를 적용하는 등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 일반해역 :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0.5%('20.1～) / 배출규제해역 : 0.1%('20.9)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하여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정점**을 확대(32→39개)하고,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시행한다.

4 해양수산 현장 전 분야에 안전 제일주의를 뿌리내리겠습니다.

□ 어선,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선박화재로 인한 대형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선에 화재경보장치를 무상 보급**(근해어선 2,700척 대상)하고, 안전성 검사 강화(5년에 2회→연1회),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13인 이상) 등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 **화물선**의 경우, **고위험·민감 위험물 법정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항만 내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 (확대 대상) 5.1급(산화성), 6.1급(독성), 6.2급(전염성) 위험물 / 현재 880종 검사 중

□ 체험위주의 실습·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결합된 해양안전문화를 구축한다.

○ 어업인 안전체험관 확대, VR 체험시설 신설, 승선실습 확대 등 **체험교육**을 **강화**하여 어업인,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키운다.

혁신성장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든다

○ 통항흐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역 국가해양교통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20.12)하고 고위험 통항로의 안전상태를 평가하는 한편, 선박별 위험도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갖춘다.

○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안산, 진도)을 본격 추진하고, 대국민 해양안전 교육과 어린이·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 체험교육**(연 3회)도 실시한다.

□ 항만·어항·연안의 재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 노후 항만 리뉴얼 선도사업인 **광양항 낙포부두** 기초조사에 착수하고, **재해방지시설**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방파제 등 5개소)한다.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항만·어항(104개, 6.3%)의 **내진보강**('20. 31개소)을 추진하고, 침식·침수 등 원인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와 친환경 기법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도 시행한다.

* '20년 해수욕장 연안정비 등 13개 국가(639억원) 및 48개 지자체 사업(598억원) 추진

○ 항만 작업구역 내 **통제시설** 설치와 **도로·보행 안전 시설물** 보강을 추진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항만 안전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작업자 안전을 강화한다.

□ 소비자 중심으로 수산물 위생안전을 확보한다.

○ 양식어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10년간('21~'30) **200개 어장 재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사료·어구** 등의 **친환경 인증·등급기준** 마련, **양식장 약품**의 **안전기준** 추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 어장정화, 품목별 적정 시설량 등을 고려한 어장재배치·조정 등 재생 유형을 도출

○ 위판장 등에 저온경매장과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확충하여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기동단속반 '암행어(漁)사' 운영(수품원)으로 대형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혁신성장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든다

5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로 해양영토를 넓히겠습니다.

□ 세계수산대학 설립 승인 추진 등 국제사회 협력 아젠다를 선도한다.

○ **국제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해 **어업분야 3대 국제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21년 FAO의 **세계수산대학**(WFU) **설립 승인**을 추진한다.

* ①항만국조치협정(PSMA) : IUU선박에 대한 검색 규정(우리나라는 '16년 비준)
②어선안전협정(Capetown Agreement) : 어선안전을 위한 선박건조·검사 기준(미비준)
③어선원노동협약(C.188) : 어선원 근무조건(휴식시간 등) 권리보장기준(미비준)

○ 新남·북방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아세안 **주요 협력국**(베트남, 인니 등)과 **해양수산공동위**를 구성하고, 관련 국가 초청 연수업무 개선, 해양수산 ODA와 연계한 해외항만진출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외항만 수주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극지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하고, 해양광물·생명자원 조사와 자원선점을 위한 **대양·심해저 탐사를 확대** 시행한다.

* 차세대 쇄빙연구선 : (쇄빙능력) 1.5m/3노트, (내한능력) -45℃, (규모) 11,500톤급

□ 해양영토 관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도모한다.

○ 체계적인 독도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제4차 독도기본계획**('21~'25)'을 **수립**하고, 입도 안전성과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독도 입도영상시스템**(실시간 확인 가능)을 설치한다.

○ 해상도가 4배 향상된 **해양관측위성**(천리안 2B호, '20.2) **발사, 국가해양관측망 확충**('19년:134→'20년: 136개소)으로 해양관측·관리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혁신성장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든다

참 고	대통령 업무보고('20.2.27) 자료 요약

1. 핵심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 선대 확충과 친환경 선박 지원 등을 통해 한진해운 사태 이후 위축된 **해운산업**의 **신속한 재건** 추진('18.1~선박발주 131척 등)

□ 해양플라스틱('19.5) 및 항만미세먼지 저감('19.6)과 자원관리형 어업체계로의 전환으로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 조성 기반 마련

□ 불법조업 단속 강화, 섬주민 생활안정,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등 **해양영토**의 확고한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

2. 주요 업무계획

◇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연안**과 **어촌**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재생사업**과 **인프라 확충** 추진

* 어촌뉴딜 300 확산/노후항만 재개발/해양레저관광 활성화/중심항만 인프라 확충

◇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의 **첨단화**와 **미래 성장**을 견인

* 스마트양식 확산 / 지능형 해상교통시스템 확충 / 한국형 스마트항만 도입

< 1.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

❶ (서비스 역량 확대) 선대 추가발주(69척) 등 **서비스 역량** 강화*와 **선사간 자율통합 촉진** 등으로 해운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 국적 원양선사 新얼라이언스 개시('20.4), 2.4만TEU급 초대형선 12척 투입

❷ (성장기반 확충)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 시행('20.2), 대량화물(원유 등) 장기계약 등 **화물확보** 및 **해운금융 생태계 조성**을 강화*

* 해양진흥공사 보증범위 확대, 민간금융·제조기업의 선박금융 참여 및 선사 간 선박 공동발주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❸ (해운재건 성과창출) **그간 해운재건** 노력을 **가시적 성과**로 도출

- (원양선사 흑자전환) 국적 원양선사는 영업적자 상태를 벗어나 하반기 중 흑자 전환 실현
- (상생생태계) 해운업 회복이 물류·제조 등 연관분야의 성장에 기여하는 산업 간 상생구조를 정착

혁신성장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든다

< 2. 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 >

❶ (어촌재생·어가안정) 어촌뉴딜300 120개소를 추가 착수*하고,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어업인 소득안정 등 추진

* '19년 착수 70개소는 선착장·대합실 등 생활SOC 사업 위주로 연내 조기 준공, '20년 착수 120개소는 속도감 있는 조기 착공 추진

** 어업인의 소득안정 + 수산업 공익적 기능(수산자원 관리 정착 등) 지원

❷ (해양레저관광) 7대 권역거점, 4대 치유센터 등 인프라 조성 및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섬관광 확대 등 사계절 관광콘텐츠를 활성화**

* (**권역거점**) 군산·강원고성·제주·시흥·보성, (**치유센터**) 완도·태안·울진·경남고성

** 충남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20.7, 결정) 추진 등

❸ (노후항만 재개발) 부산북항 1단계 '22년 초 준공과 2단계 착공을 위한 잔여사업 추진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개발 추진**

* (**특화개발모델**) 인천내항은 원도심 상생, 영종도는 공항연계 레저특화 단지 조성, 거제고현항은 친수관광도시, 광양 묘도는 에너지허브단지로 조성

❹ (중심항만 인프라) 선박 대형화, 물량증가에 대응하여 부산항 등 주요항만의 미래 인프라를 차질없이 확충

* (**부산항**) '22.上 제2신항 착공을 위한 `20년 예타 등 신속 이행
(**광양항**) 지역산업 연계 복합기능 고도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확충
(**인천항**) 신항 3선석 추가 착공(IPA, `20.하)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 3.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

❶ (스마트양식) 아쿠아팜 4.0*('20, 예타) 기술 기반의 스마트양식 확산** 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효율·고품질·친환경 수산물 생산

* 종자, 양식어종 맞춤형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식생산 전주기의 자동화·지능화

** (**클러스터**) ~'21 부산기장, 경남고성, ~'22 전남신안/ (**스마트양식장**) ~'20 충남괴산(2개소 추가)

❷ (지능형 해상교통시스템) 세계 최초로 지능형 해상교통(e-Nav)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개발*로 세계시장 선점

* 선박 충돌·좌초 예측경보, 최적안전항로 제공, 자율운항정보 연결, 네비운항 등

** 선박운용, 법·제도·기술 개발 및 표준화, 자율운항선박 조선기술 개발('20~'25, 1,603억)

❸ (스마트항만) 자동화·지능화 통합플랫폼을 개발*하고 광양·부산항에 시범시스템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 항만에 단계적 확산 추진

* IoT 장치 및 통신 인프라 개발, 항만물류자원 정보공유 플랫폼 개발 등(`19~`21, 467억)

혁신성장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든다